

## 서울 종로에 대형 조명타운 건립

서울 종로구 원남동 고려예식장 건물에 대형 조명타운이 건립될 예정이다.

그동안 고려예식장 건물은 설비노후 등의 이유로 주로 주차장으로 활용해 왔으며 최근 이곳에 대형 조명타운을 건립키로 하고 현재 입주업체를 모집중이다.

고려예식장측은 지하 1층, 지상 4층을 포함 예식

장 건물 5개 층을 모두 조명타운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현재 쌍용조명(대표 : 이상철)과 엑스포(대표 : 이계근)가 입주를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예식장이 위치한 종로구 원남동은 주변에 다수의 조명유통업체가 밀집해 있는데다 주차장을 확보한 업체가 드문 점 등을 감안할 때 새로 건립되는 조명타운에 입주 기업들이 쇄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고효율 인버터 연말까지 3천대 보급 예정

한국전력 수요관리실은 전기에너지와 최대수요전력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고효율 인버터를 연말까지 3천대 이상 보급키로 했다.

한전은 계약전력 5천kW이상인 고객 1천486호를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직접부하제어제도 약정을 체결하고 9월까지 제어시스템을 설치해 시험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전은 또 '고효율' 마크를 획득한 인버터를 6월부터 보급해 연말까지 3천대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수요관리실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버터 보급지원제도와 직접부하제어에 관한 직무 순회교육을 최근 실시했다.

수요관리실은 한전 본사를 비롯한 전국 배전사업

소의 수요관리, 내선담당자 34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순회교육에서 전동기의 이용효율을 높일 수 있는 '인버터 보급지원제도의 개요와 추진방향', '인버터 관련 선택공급약관과 수요관리업무 처리지침'을 설명했다.

또 계약을 맺은 고객의 부하를 한전이 직접 제어할 수 있는 '직접부하 제어의 개념과 시행방안'을 비롯해 '고객에 대한 약정체결 방법과 절차'를 소개했다.

한전은 인버터 제도와 직접부하제어제도의 도입이 향후 예비전력을 확보하고 피크를 억제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신도시 건설·건축 리모델링, 배선기구 수요 회복세

배선기구류의 매출이 4월 들어 지난 1·4분기의 월평균 매출에 비해 약 30% 늘어나는 등 회복세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분당, 일산 등 신도시 아파트 단지 발주 계획에 따라 최근 모델하우스가 속속 오픈되고 있어 신규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또 최근들어 기존 건축물을 새롭게 개조하는 리모델링 관련시장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매출신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하지만 매출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여전히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매출 증가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A업체의 한 관계자는 “배선기구업체는 건설경기 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배선업체의 경우 업계가 마감 자재라는 특성 때문에 본격적인 불황은 IMF 사태가 터진 2년후인 지난해부터 본격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B업체 관계자는 “지난 1/4분기에 비해 매출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봄철 건설경기의 반짝 호황과 같은 단순한 계절적인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 정부가 밝힌 바와 같이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는 징표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는 ‘건설자재 2000년 하반기실적 및 2001년 수급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산업간 경기양극화 ▲주식시장 침체 ▲대형건설사의 부도와 법정관리 ▲은행구조 및 합병으로 인한 신용경색 ▲올해 SOC예산의 동결과 완공위주 편성등 건설경기 회복을 예상하기에는 너무 많은 장애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침체 국면의 저점에 있는 건설경기가 심화 또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 메탈할라이드 안정기 신규수요 꿈틀

메탈할라이드램프용 전자식안정기 시장이 신규 수요창출로 꿈틀거리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제품에 대한 신뢰성문제로 수요처에서 외면 받아오던 메탈할라이드램프용 전자식안정기가 절전과 긴수명 등 제품이 갖는 다양한 효과로 백화점, 전시장 등을 중심으로 수요

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에따라 메탈할라이드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제조업체가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제품은 기존 자기식안정기에 비해 전력소모가 매우 적고 램프에 대한 수명 연장은 물론 무게와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다양한 장점이 있

다. 그러나 현장 적용에 대한 신뢰성 문제로 시장 활성화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들어 일부 수요처에서 제품에 대한 설치를 추진하고 있어 지금까지 제품 개발에 매달려온 업체들이 빛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메탈할라이트램프용 전자식안정기제조업체들은 신규 수요처 개발을 위해 영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제품에 대한 신뢰성 문제만 해결된다면 수요량은 엄청날 것이다”고 전망했다.

## 코앞 닥친 PL법, 공제조합 설립 의견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가정 충전기기 공제조합 설립 움직임이 일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전기산업계 일부 단체에서는 최근 PL법 시행에 대비해 PL공제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충전기기 공제조합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PL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제조업체가 생산·가공한 제품의 결함 등에 의해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바로 이점 때문에 영세한 규모의 제조업체의 경우는 이에 대비한 보험 가입이 절대적이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PL공제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기협이 시행하려고 하는 PL공제조합의 골자는 중앙회가 중기청으로부터 위임받아 운영하는 것으로서 일반 제조업체들이 별도로 보험회사에 가입하는 것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충전기, 전선, 전기용품 등 전기산업계의 규모는 국내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 1년을 남겨 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PL법에 대한 대비책 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관련기관의 관계자는 “공제조합을 통해 업계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과연 공제조합에 가입할만한 여유가 해당 중소기업체에 있겠느냐”고 지적하고 “그러나 기계공제조합의 경우 부품·소재 업체들을 상대로 사업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우리 업계도 그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LG산전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야 PL법 시행 이후 발생할 배상문제와 관련한 보험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충전기기 공제조합이 없는 한 별도로 보험 가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유일의 기계류 전문신용보증기관으로 지난 '86년 설립된 기계공제조합은 국내에서 개발된 우수국산기계 품질인증(EM) 제품(기계류·부품·소재)에 대하여 품질보증을 하고 있다. 조합원이 되려면 최소 300만원(3구좌, 소규모 기업의 경우)을 출자해야 한다.

## 한전, 중기 기술개발자금 223억원 지원

한국전력은 올 한해동안 송배전분야 중소기업지원자금으로 223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한전 송배전자재처는 전력기자재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기술자생력을 배양하고 생산기반을 확고히 다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에 223억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전의 중소기업 기술지원사업은 송배전분야 중소제조업체와 벤처기업 예비창업자, 전기공사업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 세부내역은 전력기자재의 신제품이나 국산개발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에 209억원이 지원된다.

또 중소기업이 생산·공정관리 등의 전산화를 추진하고자 할 경우 소프트웨어 개발부문에 6억원을

투입, 중소기업의 정보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제품의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품질인증제도인 ISO 획득이나 Single PPM(백만 개중 한자리 숫자의 하자품이 발생하는 품질인증품목) 등의 품질인증획득에 6억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국제전시회 출품과 판로개척 등 해외시장 개척에 2억원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방침이다.

한전의 한 관계자는 "한전은 지금까지 1천966억원을 지원했으며 한전의 기술과 자금을 지원받아 개발에 성공한 제품이 266개 품목이며 지난해에만 831억원의 수입대체효과를 올렸다"고 말했다.

## 전선 생산수출 '희비 쌍곡선'

지난해 전선 생산은 늘어난 대신 수출은 줄어들어 희비가 교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선공업협동조합이 집계한 2000년도 전선 생산·수출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전선 생산실적은 금액 면에서 지난해 대비(3조4,184억6,000만원) 12.0% 증가한 3조8,288억7,500만원, 수량(ton) 면에서 전년 대비(81만5,686톤) 6.2% 증가한 86만6,553톤을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수출 실적은 금액 면에서 지난해 대비

25.2% 감소한 14억2,544만4,000달러를, 수량(ton) 면에서 전년 대비(57만2,244톤) 19.3% 감소한 46만1,893톤에 그쳐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러한 집계를 보면 국내 전선업체가 내수시장에 치중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추세는 올해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그렇지 않아도 건설업계 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전선업체를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침체된 국내 건설산업을 감안할 때 하나의 돌파구를 잃어버리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 일각에서는 “이제라도 전선업체가 눈앞에 보이는 내수시장 진출에 안주하지 말고 해외시장 개척을 통한 활로를 모색해 나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품목별로는 생산실적 증가 추세 속에서 특히 고무 절연전선이 지난해 대비(426억6,200만원) 58.6%

늘어난 676억5,900만원을, 수송용전선이 28.2% 증가한 1,712억400만원을, 전력용전선이 19.1% 늘어난 9,030억6,700백만원을 기록한 반면 통신용 전선은 무려 39.9% 줄어든 3,317억5,700만원을, 나동선은 28.4% 감소한 1,683억8,000만원을, 알루미늄전선은 22.6% 줄어든 1,417억3,600만원을 마크하는 등 품목에 따라 극심한 편차를 보였다.

## 광명시, 조명 생산업체 전용 공장 건립

경기도 광명시에 특수 조명기기 생산업체 전용의 아파트형 공장이 생긴다.

광명삼각주 아파트형 공장은 삼각주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건설되는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뛰어난 입지조건, 편리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도심속의 현대식 공장이다.

철산동 606일대 삼각주 지구에 지하 2층, 지상 8층 연면적 3천9백여평으로 시는 5월중 분양할 계획

이며 내년 6월에 완공할 예정이다.

시는 이곳에 공연무대 조명을 비롯한 거리 조명, 수중조명 등의 특수조명 기기를 생산하는 전문업체 20여개사를 입주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기분양을 위해 입주업체에 보증금의 80%까지 용자금을 지원하며 평당 분양가도 인근지역보다 60만원 정도 저렴한 2백40만원으로 결정했다.

## 송전선로 증대 대응 고강도 전선 빠르면 내년부터 현장 적용

한국전력은 빠르면 내년부터 가공송전선로에 '고강도 초내열 알루미늄 피복 인바심 알루미늄 합금연선(HSTACIR/AW)'을 적용한다.

한전은 최근 현재 송전용량 확대 측면에서 사용중인 STACIR/AW전선이 안고 있는 이도(전선이 늘어드는 현상) 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업체에

사용계획을 통보, 개발을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의 이같은 방침은 가공송전선로의 이도 억제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철탑 신설에 따른 예산절감 및 공기단축, 공사비절감을 위한 신전선개발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밝혔다.

송변전처 한 관계자는 “고강도 STACIR/AW가

개발·적용할 경우 송전선로의 최대사용장력 증가로 이도 증가율 감소와 전선 안전을 증가는 물론 철

탑 추가 설치 감소 및 공사기간 단축의 기대효과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 전기산업계 과당경쟁으로 채산성 악화 심화

일부 경제관련기관의 경기회복진단에도 불구하고 전기기자재업체의 채감경기는 지난해보다 크게 색상, 심각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차단기와 수배전반, UPS 등 주요 전기기자재업종의 경기가 지난해보다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과당경쟁으로 인한 채산성악화도 심화되고 있다.

UPS를 제조하는 D기업의 경영주는 "올해들어 불황이었던 지난해보다도 수요가 30~40%가량 하락, 제조업체들의 가동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주요 수요처에 설비투자확대를 검토치 않고 있어 앞으로도 수요부족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또 "원자재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기제품은 과잉경쟁으로 제가격을 받지 못해 채산성면에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고 토로하고 "정책당국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고 주장했다.

개폐기업체의 한 경영주도 "최근들어 기업들이 가동률을 유지키 위해 민수는 물론 관수부문에서 저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밝히고 "일부 업체는 물량 확보에만 급급, 초저가 입찰을 서슴치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전기제품의 꾸준한 수입증가세도 업계의 수주물량부족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중전기제품의 경우 지난해 수입은 26억9천만달러에 달해 전년도 보다 31% 늘어났으나 수출은 13억9천만달러로 21% 증가에 그쳐 무역역조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같은 경기침체가 지속될 경우 내수기반 붕괴로 이어져 업종자체가 위기에 설 수 있다고 진단하고 조속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서안양변전소 건립 반대, 안양시 전력공급 차질 우려

한국전력 수원전력관리처가 안양시 서부지역일대에 전력을 공급할 서안양변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파 피해를 우려한 주변 주민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수원전력관리처 관계자에 따르면 인근 주민들은 변전소 건립 부지가 안양고등학교, 박달초등학교 등 각급 학교와 인접해 있는데다 주거지역안에 위치해 있어 전자파 피해 등이 우려된다며 변전소 건립에

반대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해 “변전소가 일반 건축물 지하에 설치되기 때문에 전자파로 인한 피해는 전혀 없으며 주민들의 반대에 의해 공사가 늦어질 경우 전력공급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안양변전소는 154kV급 변전소로 2004년 4월

까지 완공돼 가동에 들어가며 근린생활시설로 건설되고 있는 대형건물 지층을 분양 받아 건립된다.

한편 안양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안양변전소와 동안양변전소는 2004년이 지나면 공급능력에 한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돼 서안양변전소가 계획대로 건립되지 못할 경우 안양시 일대 전력공급이 차질을 빚게 될 것으로 보인다.

## 개정된 전기사업법 논란 확대

사용전 검사 대상 신설 등 새로 개정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두고 전기공사업체가 실정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서 개정법령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전기공사와 관련해 개정된 시행규칙이 사용전 검사 대상을 신설하면서 자가용전기설비 용량 1천kW 이상의 구내배전설비에 대해서도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산자부는 사용전 검사 대상 및 정기검사 대상을 신설하고,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선임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한 개정된 시행규칙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사용전 검사 대상을 신설하면서 원자력발전설비의 주요설비와 변전소 20만볼트 이상 차단기 변경공사, 5km 이상 송전선로 변경공사, 0.5km 이상 공동구 전력구 배전선로, 1천kW 이상 자가용 구내 배전설비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선임시기를 공사 착공전에서 사용전 검사 신청전으로 조정하고 3년주기로 법정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는 전기화

재 예방 등 재해 예방 차원에서 안전검사 대상의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관련업체 대부분이 환영의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개정된 시행규칙이 0.5km 이상의 공동구 전력구 배전선로와 1천kW 이상 구내배전설비의 사용전 검사를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의 전기공사업체들이 법시행의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는 전력설비에 대한 검사 강화는 결코 지나치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배전선로나 자가용전기설비 공사에 적용되는 사용전검사 대상 기준이 업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기준으로 제시돼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업체는 사용전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공사는 공사업체가 시공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포함시킨 것으로 법적용으로 인한 공기 차질이나 경제적 비용문제 등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업체 한 관계자는 “그간 공사업체들의 대부분이 사용점검 등의 각종 검수과정에서 담당자에 대한 인사비용을 부담해 왔던 것이 사실이며, 이같은 비

용을 부담하지 않으면 적기에 검사를 받을 수 없어 공기에 차질을 빚는 등 불이익이 수반돼 왔다”고 말했다.

이같은 실정을 감안할 때 부하설비에 대한 사용점검 대상이 확대되면 재해예방에 대한 긍정적 측면보다는 오히려 부조리만 늘어날 수 있다는게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한국전기공사협회 한 관계자는 “개정된 시행규칙

이 자가용전기설비의 1천kW이상 구내배전설비에도 사용전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사용전검사 대상기준을 지나치게 확대했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은게 사실”이라며 “검사 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함은 물론 이번 법개정을 계기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감시감독은 물론 건전한 시공풍토 조성을 위한 업계의 개혁 또한 절실하다”고 말했다.

◆ 단장(斷腸) : 斷 끊어질 단, 腸 창자 장  
⇒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픔

